

# AI 활용 미래형 전기안전 기술개발 착수

### 한국전기안전공사, 공모사업 선정으로 4년간 220억원 확보... 디지털 안전관리 환경 구축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미래형 전기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재해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관리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개발을 주관한 국가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4년간 총 22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AI와 IoT 기반 원격점검 기술을 활용해 저압부터 특고압에 이르는 전기설비의 누전, 과전류, 과열 등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디지털 안전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AI 기반 위험예측 알고리즘과 전기설비 데이터 송수신 장치, 성능평가 및 안전진단 기술 등을 개발해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사업을 계기로 기존 현장 방문 중심의 사후 대응형 점검 체계에서 벗어나 상시 모니터링 기반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실시간 감시와 원격 진단이 가능한 디지털 안전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현장 실증과 운영 인프라 조성을 통해 미래형 전기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과 상용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화영 사장은 "전기안전관리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AI 기반 원격점검 기술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래형 전기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점검 중심에서 예측·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재해 감소와 국민 안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이 양파 수확철을 맞아 농가 일손돕기와 소비촉진 활동에 나서며 농업인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 전북농협, 지역사회 상생 실천

### 양파 농가 일손돕기·소비촉진 나눔 활동 전개

전북농협이 양파 수확철을 맞아 농가 일손돕기와 소비촉진 활동에 나서며 농업인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농협은 지난 12일 농심전심 국민참여봉사단인 고향주부모임과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 함께 '농심전심 범농협 농촌 일손돕기 집중지원'의 일환으로 양파 수확 일손돕기와 양파장아찌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와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 시·군 회장단, 화산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 전북농협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양파 수확 작업과 양파장아찌

담그기에 직접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참석자들은 인력 부족과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양파 수확을 지원하는 한편, 수확한 양파를 활용해 300통의 양파장아찌를 직접 만들어 도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지역사회 나눔을 동시에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정성이 담긴 반찬을 취약계층과 나누며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오상근 기자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기업·청년 모집

### 전주상공회의소, 22일까지 접수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는 '2026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직무·경력 중심 채용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경험하며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과 청년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실제 업무에 참여하며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실질적인 경력을 쌓아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기업은 인턴십 과정에서 청년들의 직무 적합성과 역량을 검증해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할 수 있

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인재 채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어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태 회장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미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상생형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과 기업이 참여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

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참여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과 함께 주 25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당 37만5,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참여 기업에는 기업지원금과 멘토수당이 제공된다.

사업 참여 신청 및 문의는 전주상공회의소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0-1152, 1155)로 안내받을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전북테크노파크,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사업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약 2주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김제시, 남원시, 장수군이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연구 자원을 활용해 부가

가치를 창출할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제시·남원시·장수군에 분사,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가운데 1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이다.

각 지역의 중점 연구산업인 △김제시 특장차 △남원시 그린바이오 △장수군 레드푸드 및 스마트농업 분야의

전·후방 연관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제품개발 컨설팅, 시제품 제작, 마케팅, 시험분석 및 인증, 기술지도, 공정개선 등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기업별로 단일 또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최대 5,0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3차 모집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오상근 기자

## 전북은행, 'JB 주거래 플러스 예·적금' 출시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주거래 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JB 주거래 플러스 예금'과 'JB 주거래 플러스 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JB 주거래 플러스 예금' 가입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는 연 3.25%다. 우대금리는 △JB주거래 통장 보유 시 연 0.10%포인트 △JB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 충족 시 연 0.10%포인트가 각각 제공돼 최고 연 3.45%(세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JB 주거래 플러스 적금'은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 1년 만기 기준 정액적립식은 기본금리 연 3.25%에 우대금리 최대 연 0.30%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3.55%(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자유적립식은 기본금리 연 3.15%에 우대금리 최대 연 0.30%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3.45%(세전)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바이오진흥원, 농식품기업 애로기술 실증연구 본격 추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이 도내 농식품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기업 애로기술 실증연구'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이 원광대학교 글로벌대학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술이전과 실증연구,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해 도내 농식품기업의 기술사업화 확산과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과제는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 현장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기업에 접목해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진흥원은 총괄기관으로서 기업 애로기술 발굴부터 기술 보유자 매칭, 기술이전 연계, 실증연구 지원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올해 지원 대상 기업은 △제이엘브리지 △라스팜 △순단지발효연구소 △버섯마루 등 4개사다.

제이엘브리지는 한국 고유 식품의 해외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액산 스틱형 건강간장 음료 개발에 나서며, 라스팜은 대두 유래 부산물을 활용한 식물성 단백질 셰이크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순단지발효연구소는 곡산 두류를 활용한 식물성 발효 스프레드 개발에 착수하고, 버섯마루는 버섯 신균주의 분지재배 기술 확보를 통해 제품화와 농가 보급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은미 원장은 "이번 과제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도내 기업의 제품 개발과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기업의 기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실증연구와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 25일까지 기금이사 후보자 공개 모집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담당할 기금이사 공개모집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일 기금이사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금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25일까지다.

지원 희망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2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등 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접수 마감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기금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기금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직무 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연금기금 가운데 하나로, 기금이사들은 기금 운용과 투자 전략 수립 등 국민 노후자산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